

21세기 양계연구 추진방향



정 행 기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장

WTO 체제하에서 농축산업도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은 물론 양계 산업이 살아남기 위하여 고심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게도 외화부족으로 국제금융기구(IMF)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게되고 환율이 두배 가까이 급상승

하였다.

따라서 배합사료원료와 석유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외화부족과 환율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양계산업은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중 중요한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공업화로 국민총생산액중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성장산업으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액 중에서도 양계분야가 22.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와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국민 1인당 닭고기, 계란의 소비량도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육류의 소비자 기호가 적색육에서 백색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양계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동안 양계산업에 있어서 시설, 환경, 사육 규모, 사육기술, 경영기술 및 생산성 등 많은 개선,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양계산물의 수요증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욕구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본다.

고품질의 값싼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97년 7월 이후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는 등 세계가 하나의 자유시장이 됨에 따라 철저히 시장경제 원칙하에서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수입개방 시대에 우리 것을 지켜 자급자족하는 방어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우리 양계산물의 수출을 많이 하는 공격적 사고와 능력을 발휘해야만 생존하는 세상이다.

이제 양계산업에 연관된 각 분야가 일류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들 연관분야끼리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더욱 중요하다.

육계의 생체 kg당 생산비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태국 등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1.5~2배 정도로 높다. 이는 외국의 출하체중이 2.1~2.7kg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5kg 전후로 낮아 육계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주 원인은 병아리대와 사료대가 높기 때문이다. 종계 수당 병아리 생산이 우리나라가 95수 정도인데 비하여 미국 145수, 태국 125수 정도이며, 사료비는 사료곡물 주요 수입 상대국인 미국에 비하여 약 2배나 더 많다.

계란 생산비에 있어서도 미국 등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사료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인건비도 약 2배로 훨씬 높다. 닭고기 완전 수입 개방 이후 월간 수입량은 개방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비형태가 신선육 위주인데 비하여 냉동상태로 수입되고 있어 소비성향과 품질 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닭고기 세계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비하여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만수이상으로 사육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양계업 경영효율을 기하고 있으나 규모화사업 정착단계에서의 사양관리 등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본다.

'96년 7월부터 유해성 잔류물질 규제가 실시됨으로써 생산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해야만 한다.

양계업 경영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수질오



대전지소는 가금(양계)분야의 농가접목 실용화기술을 연구하는 실질적인 가금연구소가 된 셈이며, 수원에 근무하던 가금연구팀이 대전으로 대거 증원 발령되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염, 대기오염 등 환경공해 발생도 일으킬 수 있고 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양계장을 폐쇄해야만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기본목표는 최대의 생산성 및 최고의 품질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투자로 경쟁력을 1위에 올리고 또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사료원료, 기타 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자원 빈국인 나라가 제품생산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종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농가의 응계로부터 시작하여 수정, 부화, 사육환경, 영양, 관리, 질병 등 상황을 수직, 수평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여야겠다.

사료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양계경영에 있어서 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료효율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배합표상의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료급여시 실질적으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실용 배합기술을 현장사육시험을 통하여 개발해야하며 음식물찌꺼기, 농수산부산물, 가공부산물 등 유기성 부산물의 사료이용기술 등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많다. 인건비 절약과 전문화를 위하여 규모화 경영을 하고 있는 농장현장에서의 시설환경, 영양, 관리, 자동화 제어기술 등 실질적인 문제와 개선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겠다.

사육기술이 획일적이거나 또 개발된 기술이 영구적일 수는 없다. 사육환경, 사육조건, 경영조건 등에 따라 사양관리기술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발되어야 할 기술은 무궁무진하며, 항상 새로운 기술의 수요가 있게 마련이다. 부분육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부분육 생산 기술과 닭고기 수출을 위한 대형 육계 사육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

생존율 향상과 양계산물 최대 생산성을 위한

육종, 영양관리면에서 개선은 물론 시설과 관리기구, 관리방법 등도 최고를 목표로 고쳐져야 한다.

축산기술연구소는 '97년 9월에 업무 내용상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수원에 있는 축산기술부는 가축, 가금에 대한 기초 및 첨단기술을, 성환의 종축개량부는 개량에 관한 연구를, 4개 지소는 각 축종별 실용화 기술을 연구하도록 조직이 개편되어졌다. 따라서 대전 지소는 가금(양계)분야의 농가접목 실용화기술을 연구하는 실질적인 가금연구소가 된 셈이며, 수원에 근무하던 가금연구팀이 대전으로 대거 증원 발령되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양계산업과 공동운명체로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기술의 새로운 정보도 많이 습득하고 일선현장의 애로사항도 많이 접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계산업이 되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양계**

모 집 공 고

'97년 말부터 몰아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양계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인상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료를 급이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계시기나 절감 방법을 알고 계신 사양가들이 있다면 그 사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곳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번지 축산회관 5층 대한양계협회
- 전화 : (02)588-7651
- 팩스 : (02)588-7655